유진투자증권 Global Macro | 2021.10.18

ESG

Weekly Focus



Economist/Asset Allocation 방인성_02)368-6145 isbang@eugenefn.com



(Environment)

주간 국내 기사

'태양광부터 수소까지'…300개 기업 '에너지대전'서 신기술 선봬 이데일리

불편만 야기하는 식품업계 'ESG 경영'

디지털타임스

기름기 쫙 뺐다…'脫탄소 시대' 주유소의 변신

한국경제

에쓰오일, 아람코 생산 암모니아 국내 도입

파이낸셜뉴스

현대차, 美캘리포니아에 48개 수소충전소 구축

이데일리

화물용 목재 파렛트도 친환경으로 탈바꿈

조선비즈

SK(주), 친환경 그린 사업에 14.4조원 투자···사업가치 '6배로'

삼성重, 세계 최초 열전발전 탑재 친환경 LNG선 만든다

서울경제

오리온, 해외공장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Social)

주간 국내 기사

삼성전자 2년 연속 '세계 최고 고용주' 1위…美 포브스

이데일리

현대제철, 협력사 노조 불법점거 사태 일단락…노사 극적 합의

아이뉴스24

카카오 '선투자-고율 수수료', 작가몫 1,500만원 더 떼갔다

서울경제

"발전 5사, 분쟁 해결에 미적…소송 길어져 상대업체 도산 위기"

뉴시스

일터서 밀려난 '경제 허리'..3040 고용률 갈수록 하락

파이낸셜뉴스

공정위, 플랫폼 이어 대형유통업체 겨냥?…'갑질' 처벌 강화한다

서울경제

삼성전자 노사, 2021년도 임금교섭 돌입…노조 요구안 전달

디지털타임스

카카오가 여성 이용자를 저격했다고? 다음카페앱에 무슨 일이

헤럴드경제

고용부,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 감독 착수

연합뉴스

G(Governance)

주간 국내 기사

SK, 이사회 중심 경영 대폭 강화…"CEO 평가와 보상도 이사회에서 결정" 한국일보

GM "전기차 리콜 관련 LG로부터 2.3조원 배상 합의"

이데일리

정기선 현대重지주 사장 승진… 오너 3세 경영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토스와 타다 지분 나눠가진 쏘카…3사 기업가치 오를까

이코노미스트

SK아이이테크놀로지, 폴란드 자회사에 3000억원 규모 출자

아시아경제

야놀자, 인터파크 인수… 글로벌 여행시장 공략

세계일보

LS전선, 전기차 부품 사업 수직 계열화 단행 SK텔레콤, 분할 마치고 4분기 글로벌 M&A·제휴확대 나선다

뉴시스

서울경제

이데일리

삼성SDS, 직방에 홈IoT 사업 매각 추진

연기금 & 스튜어드십 코드

주간 국내 기사

"세계 인구 85%가 폭염·폭우·가뭄 등 기후변화 영향 받는다"

뉴스1

이혜리 에코비트 최고준법책임자 "기업들 본업과 ESG '한몸'돼야 생존" 한국경제

"2030년 탄소 40% 감축"… 정부 밀어붙이기에 산업계 '한숨

파이낸셜뉴스

KIC 창립 16년만에 운용자산 2,000억달러 돌파

서울경제

"월가 한국 영향력 커졌네"…최대 사모펀드 KKR수장에 조셉 배 세계 최대 '큰 손'에 듣는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안 오겠지만…"

매일경제

이데일리 한국경제TV

EU 10개국, 원자력 지속가능 에너지원에 추가 요구

"실체없는 ESG...주식투자시 역이용하라"

파이낸셜뉴스

기업의 매출과 이윤을 분석할 때 ESG 요인을 평가한 사례 'AGF Investments Inc.' Part .1

IT동아

주 : E, S, G, 연기금 및 스튜어드십 코드의 기사 내용을 클릭하면 해당 기사로 연결됨.

ESG FOCUS UPDATES

공적연기금 ESG 투자의 현황과 과제

- 자본시장연구원 21.10.13

- 2016년 UN PRI가 발간한 보고서는 지산보유자가 주식 투자에서 ESG 통합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4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 예시1) 스마트베타 전략: ESG 요인과 평가점수를 가중치로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ESG 요인이 반영된 스마트베타 지수를 구성하는 전략: 예시2) 패시브 또는 강화된 패시브 전략: 개별 종목의 ESG 위험에 대한 노출도 등을 감안하여 기존 시장지수의 가중치 등을 조정하고 이를 그대로 추종하는 패시브 운용 전략
- 국민연금이 현재 국내주식의 직접운용에 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ESG 통합 전략은 PRI가 제시하는 통합 전략의 실행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다소 소극적인 ESG 전략으로 파악됨
- 국민연금의 경우 책임투자 초기에는 단순히 사회책임투자형이라는 위탁운용 유형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기금의 ESG 투자에 대한 외부 요구에 형식적으로 대응함
- 하지만 ESG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대상 자산을 국내주식 전체로 확대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비재무적 요인의 고려가 기존 포트폴리오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실행됨
- ESG 요인으로 투자 비중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기보다는, 평가등급이 낮은 종목에 대한 투자 비중을 시장보다 상회하지 않는 정도로만 ESG 통합 전략을 구사하고 있기 때문임
- 통합 전략에 비해 스크리닝 전략은 포트폴리오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직접적임. 국민연금이 글로벌 연기금의 보편적인 ESG 투자 전략으로 실행되고 있는 스크리닝 전략을 쉽게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임
- 네거티브 스크리닝 전략은 특히 글로벌 연기금 간의 기관 간 연대와 밀접하게 연관됨. 글로벌 어젠더에 대하여 연기금
 의 영향력을 배가하기 위한 기관 간 연대는 예외 없는 투자 배제와 통일된 방향의 기업관여를 추구하기 때문임
- 하지만 국민연금은 아직까지도 네거티브 스크리닝의 장기적 효용성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기업관여 활동에 있어서도 국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글로벌 어젠더의 관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문제에만 매몰되어 있음
- ESG 투자는 공적연기금의 운용 전반에 걸쳐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될 것으로 전망됨. 공공기관의 전형적인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ESG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선도적으로 견인하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됨

글로벌 금융회사의 그린워싱 사례와 시사점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21.10.12

- DWS(Deutsche Bank 계열 운용사)는 2020년 지속가능성 보고서에서 전체 운용자산(9천억유로)의 약 50%가 ESG관련 자산이라고 발표함. 이에 DWS의 전 지속가능성 책임자는 DWS가 적절한 ESG 평가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실제 ESG 기준에 적합한 펀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여 'ESG 자산 50%'는 허위 공시라고 고발함
- DWS는 그린워싱 의혹에 대해 부인하였으나 SEC와 독일 금융감독청(BaFin)의 조사가 시작되면서 하루 만에 주가가 14% 가까이 폭락함
- ESG 평가기관인 InfluenceMap은 BlackRock, State Street Global Advisors, UBS 등 글로벌 주요 운용사의 130개 ESG펀드(운용자산 670억달러) 중 72%가 파리기후협정 목표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함
- Vanguard는 US ESG ETF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Google, Apple 등에 투자하면서 일반 테크핀 ETF를 명칭만 ETF로 바꾼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함
- HSBC는 2050년 Net-Zero 달성과 함께 2030년까지 약 1조달러의 기업 에너지 효율화 지원 계획을 발표했으나, 화석연 료 파이낸싱 중단(phase-out) 계획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함
- Amundi, Man Group 등 15개 기관투자자들은 HSBC가 화석연료 중단 계획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주총에서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밝혔고, HSBC는 2030년까지 신흥국, 2040년 이전에 선진국에 대한 화석연료 투자 중단 계획을 발표하면서 논란을 수습함
- 그린워싱이 발생은 1) 그린(ESG) 여부를 판단 및 평가하는 명확한 기준 또는 규제 미비(외부적 요인)와 2) 금융회사의 단기 성과주의(내부적 요인) 등에 기인함
- 유럽에서는 2020년 3월부터 그린워싱 검증을 위한 SFDR을 제정 및 시행하고 있음. SFDR 시행 이후 다수의 펀드들이 ESG 부적합 판정을 받게 되어 2018년 14조달러에 달하던 유럽 내 ESG 투자규모가 2020년 12조달러까지 급감함
- 하지만 전문가들은 SFDR의 세부 기준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실행방안도 구체적이지 않아 ESG를 명확히 구분 하고 그린워싱을 예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함
- 그린워싱은 금융회사의 이미지 훼손에 따른 영업력 위축, 기업가치 하락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엄격한 내부검증과 예방 시스템이 중요함. Nordea Bank의 경우 내부적으로 정확한 정부공개 프로세스 구축, 전문 인력 확충, 장기 성과 지향적 경영전략 수립 등을 통해 그린워싱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음





한국 배터리 산업의 최근 현황과 전망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1.10.14

- 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2019년 212만대에서 2020년 299만대로 늘어났으며, 2021년 상반기에도 전년동기대비 168% 늘어난 263만대를 기록하는 등 성장세를 지속 중임
- 성장을 주도하는 곳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지역으로 전기차 판매 침투율이 2019년 2~3%대에서 2021년 상반 기에는 10% 중후반 수준으로 상승함
-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도 2021년 1~8월 판매량이 전년동기대비 194% 증가한 180만대를 기록하는 등 보급 속도가 더욱 빨라지는 모습임
- 세계 전기차용 리튬 배터리 사용량은 2019년 118GWh에서 2020년 147GWh로 늘어난데 이어 2021년 1~8월에는 약 162GWh로 전년동기대비 139% 상승함
- 유럽 등 국내 주력 시장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한국 배터리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019년 15.9%에서 2021년 1~8월** 34.8%로 크게 확대됨
- 한국 배터리 기업들은 중국, 유럽에 이어 가장 늦게 열리고 있는 미국 시장에 주목하고 있으며, 향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격적인 생산시설 투자를 진행 중임. SK이노베이션은 미국 테네시주와 켄터키주에 포드와 함께 배터리 생산 및 전기차 조립 공장 건설을 하기 위해 약 13조원을 투자할 계획임
- 현재 한국의 주력 시장인 유럽은 역내 공급망 구축에 따른 경쟁심화로 M/S 하락이 우려됨. 테슬라, 폭스바겐, PSA 등 자동차 기업들이 유럽 내 생산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CATL, Farasis, BYD 등 중국 배터리 기업들도 유럽 진출을 확대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유럽시장 점유율이 점진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음
- 또한 2020년 하반기부터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Farasis Energy, ZTE High Energy 등 주요 업체들을 대상으로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리콜이 발생함
-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제품 폼팩터 및 안전성이 높은 양극재 물질로의 변경을 검토하고, 셀 디자인 개선, 생산과정 개선 및 품질관리 강화 등 다양한 대응방안을 마련 중임
- 배터리의 폼팩터, 셀 물질구성 등으로 볼 때 전기차 배터리는 아직 주류 기술이 확립되지 않았으며, 장기적으로 어떤 방식이 주도권을 가져갈 지 알 수 없음
- 한국 배터리는 안전성 중심 설계 및 검증된 양산 기술 확보 등으로 시장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야 하며, 전고체 전지 등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집중해야 함

탄소중립, 이차전지도 피해할 수 없다

- 포스코경영연구원 21.10.13

-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이 주요 화두로 떠오르며 이차전지 산업에서도 CO2 배출 관리가 핵심 경쟁요건으로 부상하는 모습임. CO2 배출량은 LCA 관점에서 평가되기 때문에 최종제품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선 **결국 원료 소재 부품을 포함** 한 **全 단계의 저감이 선행되어야 함**
- 이차전지 산업의 탄소배출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것을 예고한 EU는 2024년부터 역내에서 판매되는 이차전지의 Carbon Footprint 신고 의무화 추진함. 미국도 유럽 규제를 벤치마킹하는 한편 유사 제도의 도입가능성을 시사함
- 이차전지 핵심 수요처인 글로벌 자동차사 , 자사 탄소중립 목표 수립에 따라 이차전지를 비롯한 부품사에 CO2 배출 관리 동참 요구함
- 한편 이차전지는 전기차 생애주기 Carbon Footprint 의 30% 점유함. 전기차는 전체 생애주기에서 내연기관차 대비 절반 이하의 CO2를 배출함. 제조 단계 탄소 배출량은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으며 이는 이차전지 제조 과정에서 주로기인(이차전지 제조 배출 량 이 전기차 전체 배출량의 절반 차지함)
- 이차전지 제조만을 기준으로 하면 약 20%가 셀 제조 단계에서 발생하며, 양/음극재, 전해액, 분리막 등 주요 원료/소재 단계에서 80%가 발생함
- 제조국 및 원료 공급지역의 에너지 Mix에 따라 탄소배출량에서 차이가 발생하며 석탄발전 비중이 높은 중국이 EU 대비 많은 양의 CO2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됨. 또한 코발트/니켈 등 중국산 금속원료 사용 시 Carbon Footprint 증가함
- 주요 기업들이 재생에너지와 리사이클링 원료의 확대 도입 계획을 수립하는 가운데, 유럽 소재기업들은 역내 원료 수급 및 리사이클링 사업에 연계해 벨류체인을 새로 구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남
- EU 등 후발국은 이차전지 산업의 저탄소 트렌드를 역내 산업 기반 확대 및 지역 패권 장악을 위한 기회로 활용함. 이차 전지 성장에 연계, 국내 소재 점유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저탄소화로 대표되는 친환경 경쟁력이 국내 소재산업 생태계의 장기 생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UN SDGs 연계 ESG ETF

목표 2.

기아 종식, 식량 안보와 개선된 영양상태의 달성 및 지속 가능한 농업 강화



RIZF

Rize Sustainable Future of Food UCITS E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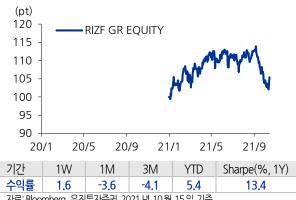
- 글로벌 종목 중 유동 시가총액 1억달러 이상, 3개월 일평 균 거래대금 100만달러 이상 종목 대상
- 개별종목별로 지속가능 식품 스코어를 산정하여 글로벌
 식품 밸류체인 지속가능성 개선 기여도 및 테마 익스포저여부를 정량화. 관련 매출이 높을수록 높은 스코어 부여
- 전체 스코어 합계 대비 개별종목 스코어 비중을 계산하여 지수 비중 결정

FTF 개요

Cit Aller	
티커	RIZF GR EQUITY
상장일	2020-09-02
운용사명	Rize UCITS ICAV
총보수율(%)	0.45
기초지수	Foxberry Tematica Research Sustainable Future of Food Index
가중 방식	Basket
주당 가격(달러)	5.94
보유 종목 수	46
시가총액(백만달러)	286,9
시총/전략/지역	Broad Market / Blend / Global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년 10월 15일 기준

주가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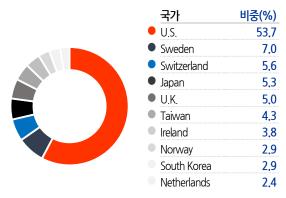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 년 10월 15일 기준 주 : 2019.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TOP 10 보유 종목

티커	이름	시가총액 (백만달러)	비중 (%)
FMC US	FMC Corp	11,898	3.7
OLUS	O-I Glass Inc	2,325	3.7
DOLE US	Dole PLC	1,427	3.7
BYND US	Beyond Meat Inc	6,682	3.6
SIGN SW	SIG Combibloc Group	9,154	3,5
BCPC US	Balchem Corp	4,887	3.4
OTLY US	Oatly Group AB	8,587	3.4
CVGW US	Calavo Growers Inc	682	3,3
TTCF US	Tattooed Chef Inc	1,448	3,1
BLL US	Ball Corp	29,820	3.0
합계			34.4
71 - DI I	O 7 1 5 7 1 3 2 3 4 1 4 4 0 0 1	4 F OL 7 I Z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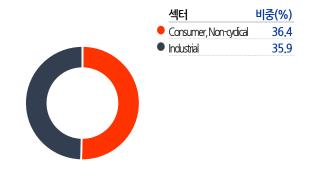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 년 10월 15일 기준

국가 구성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 년 10월 15일 기준

섹터 구성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2021 년 10월 15일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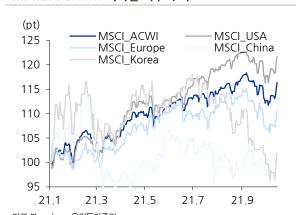
국내외 주요 지수 추이

MSCI Global ESG 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MSCI ESG Leaders 국가별 지수 추이



자료: Bloomberg,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대체 에너지 ETF 추이



ESG 회사채 TR 지수 추이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ESG 지수 추이



자료: FnGuide, 유진투자증권 주: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국내 K-뉴딜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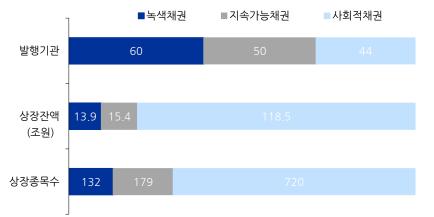
자료 Moulde, 규진누시하면 주 : 2020.12.31 종가=100을 기준으로 지수화

신규 상장된 사회책임투자채권

채권종류	<mark>종목</mark> 명	상장일	표면이자율	상장잔액 (백만)
사회적채권	인천국제공항공사 166(사)	2021/10/12	2.25600	100,000
사회적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 58(사)	2021/10/12	1.91800	290,000
사회적채권	부산항만공사 34-1(사)	2021/10/12	1.89000	20,000
사회적채권	부산항만공사 34-2(사)	2021/10/12	2.38900	50,000
사회적채권	한국장학재단 21-11(사)	2021/10/12	1.83100	90,000

자료: SRlbond, 유진투자증권

사회책임투자채권 상장현황



자료: SRlbond, 유진투자증권 주: 발행기관은 종류별로 발행한 기업의 경우 중복하여 산출

Compliance Notice

당사는 자료 작성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 간 해당종목에 대해서 유가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당사는 본 자료 발간일을 기준으로 해당종목의 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조사분석담당자는 자료작성일 현재 동 종목과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조사분석담당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제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동 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동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

도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투자기간 및 투자등급/투자의견 비율

종목추천 및 업종추천 투자기간: 12 개월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추천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

당사 투자의견 비율(%)

· STRONG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50%이상	0%
· BUY(매수)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5%이상 ~ +50%미만	93%
· HOLD(중립)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이상 ~ +15%미만	7%
· REDUCE(매도)	추천기준일 종가대비 -10%미만	0%
		(

(2021.09.30 기준)